관계부처합동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12.(목) 09:00 배포 2026. 11. 12.(목) 08:00

「양극화 대응 TF」 총괄반 1차 회의 개최
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위해 전 부처 역량 결집

- 「**양극화 대응 추진방향**」 발표 직후 **TF 총괄반 즉시 가동**(재경부·복지부차관 공동팀장)

- **5대 분야별 작업반* 운영계획 논의**, 향후 매주 회의를 열어 **핵심 정책과제** 발굴

* ①노동시장, ②산업·기업, ③지역, ④세대, ⑤사회 격차 완화반

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과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.12(목) 08: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및 기관*이 참석한 가운데 **「양극화 대응 TF」 총괄반 1차 회의**를 개최하였다.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「양극화 대응 추진방향」을 **발표**(11.11(수))**한지 하루 만에 총괄반**을 **즉시 가동**하여 과제발굴 등을 본격 착수하였다.

* 행안부, 산업부, 노동부, 국토부, 중기부, 기획처, 금융위, 총리실, 경인사연 등
** 성장경제비서관, 보건복지비서관

「**양극화 대응 TF**」는 "더 따뜻한 민생"을 위해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고자, **경제부총리가 직접 팀장**을 맡아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의 역량을 총결집한 **범정부 협업체계**이다. 이 중 **총괄반**은 TF의 **기본방향 설정과 5개 작업반 운영 등 TF 총괄·조율**을 맡는다. 아울러 3대 민생 프로젝트(주거·일자리·서민금융)의 추진상황 등도 면밀히 점검·관리한다.

오늘 회의에서는 **5대 분야 작업반별 운영계획**을 논의하였다. 앞으로 **작업반별 회의는 매주, 총괄반 회의는 월 2회 이상 개최**하고, 회의결과는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대외에 공개할 계획이다. 각 작업반은 5대 부문별 핵심과제를 발굴, 양극화 대응 TF에 보고·논의한다. 발굴한 과제는 **❶즉시추진**, **❷내년 중 제도개선 및 추진**, **❸사회적 논의 및 공론화 과제** 등으로 나누어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며, 연내 부처 간 합의된 과제는 **「2027년 경제성장전략」에 담아 발표**할 예정이다.

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“이제는 ‘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있는가’라는 질문에 정부가 답해야 한다며,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이 61% 수준으로 낮아지고 **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의 2.7배**에 달하며, AI 전환·확산 등은 **K자형 양극화를 심화**시킬 우려가 있다”고 진단하였다.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**재정·세제·금융·규제개선** 등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**성공 모델화 후 확산**을 추진하는데 **범정부 역량을 결집**하자고 강조하였다.

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은 “양극화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,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**사회경제적 이동성을 회복**하고 **빈곤 고착을 막는 예방적 투자와 보호**의 균형이 중요하다”고 강조하며, “각 작업반의 과제가 부처별로 분절되지 않고 **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패키지**로 발전할 수 있도록 **총괄반 중심의 긴밀한 조정과 협업**”을 강조하였다. 더불어 “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**분야별 격차 완화 방안**을 **다각도로 모색**할 수 있도록 참여 부처 및 기관의 활발한 참여”를 당부하였다.

※ 별첨: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

담당 부서	재정경제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	책임자	과 장 윤범식 (044-215-8510)
		담당자	서기관 윤지원 (yjw1533@korea.kr)
		담당자	사무관 김세웅 (swoong96@korea.kr)
담당 부서	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	책임자	과장 방영식 (044-202-2430)
		담당자	사무관 김우람 (kimwrr@korea.kr)